

◆며느리권씨 일전 20-1

## 진주유씨 '경성당' 차종부(次宗婦) 권보남(權寶男)

권용한의 女, 추밀공파 35세, 진주유씨 유문형의 부인

인간 세상에 영웅호걸도 중요하지만, 일상의 소소함의 즐거움을 가지고 온난한 가정과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평탄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 그래서 현대에 와서 평범하지만 귀중한 권문의 며느리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취재차 안산문화원 등에 알아보았으나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하니, 이제는 일개인이 관료를 앞서가는 시대이다. 이후 직접 방문하여 여사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다.

안산시 상록구 만수동천길 29(부곡동 237)에 자리잡고 있는 '경성당'은 권보남(權寶南·90) 5대 종부(宗婦)가 아들들과 함께 지키고 있고 1850년까지 어진 오래된 우리 전통 가옥으로, 안채는 약 200여년 전에 지어졌다. 19세기 안산 지역의 양반사회 주거 양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적 자료임에 틀림없다.

**경성당과 유희당**

권 여사는 1934년 대전시 무수동에서 유희당 종손 권용한과 연안이씨 이현군 사이의 3남매 중 막내로 출생하여 대전여중고를 마친 재원이다. 부모 사별 후 서울에서 29세에 진주유씨 백첨관공파 22세 손 유문형과 1962년 결혼하여 남편 직장 따라 부산, 경기도 일원을 다니다가 남편 퇴직 후 다시 이곳에



경성당 전경, 현관과 실내에 있는 '우승산인'이 글씨는 대원군이 썼다고 한다. 항토유적 32호

정착했고, 이후 시부모님을 모시고 남편과는 2000년에 사별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권 여사의 시어머니 권태임은 충주 출신의 현모양처로 유복한 집안의 딸로 성품이 온화하고 솔씨가 뛰어나 음식도 잘하였다 하 고 오로지 남존여비 순종의 여인이었다고 한다. 그녀는 대체로 1915년에 태어나 1966년경에 별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분 또한 권 여사에 앞서는 이 집안, 권문의 며느리이니 이후 다시 조사하여 글을 남길 필요가 있다.

그리고 권 여사가 1962년 결혼하기 전까지 살던 곳은 대전 무수동 유희당(有懷堂)으로 권이진(1668-1734) 선생의 호를 따서 지은 건물과 그에 소속된 재실로 보문산 남쪽 기슭 아득한 곳에 자리 잡고 있다. 부모를 간절히 생각하는 효성스러운 마음을 늘 품고 싶다는 뜻을 지닌 '유회(有懷)'는 중국 명나라 때 학자인 전목제의 '명발불매 유희이인(明發不寐 有懷二人)'이라는 시에서 따온 말이다.

유희당은 앞면 4칸·옆면 2칸 건물로 활수단이라 는 작은 연못 뒤쪽에 있으며, 앞면과 양쪽 면에 난간이 돌려진 뒷마루가 있고 가운데 넓은 대청마루를



2000년도 이전 경성당, 어느 집지사가 찍은 가족사진, 아들 삼형제와 며느리 손자들.

중심으로 양쪽에 온돌방을 배치하였다. 제사를 지내는 재실인 기궁재는 그자형 건물로서 넓은 대청을 중심으로 양방·건전방·부엌 등이 있으며, 1920년대에 다시 지었다. 둘 다 근세의 건물이기는 하지만 그 문화재적 가치는 높다고 하겠다.

경기도 안산시는 신흥도시이고 또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다문화 도시이지만 여기는 많은 사연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조선왕조 선조왕의 할머니로 그녀의 핏줄이 말대왕 고종까지 흘러가는 창번 안산 안씨의 본향이고, 권문의 문종의 왕비 현덕왕후의 첫 번째 장자(葬地)이기도 하며, 또 을사오적 권중현의 별장이 있었으며, 몇 년 전까지도 본 기자의 취재 시에 폐가로 남아있었다. 그가 여기서 자신의 죄를 반성했는지는 모르나 오늘날 권문의 기준을 어느 정도 만든 곳이기도 하다. '능동설기'를 쓰고 죄보를 정비하고 향렬을 지급처럼 정한 것도 그다. 원래 권재형(權在衡)이나 32세에 맞추어 권중현으로 개명했다. 그의 가계도는 예전에 본 기자가 별도로 만든 바 있으나 딸만 있어서 양자이고 그의 동생 권중면의 아들이 바로 그 딸의 주인공 권태훈 용인에, 의절하였다고 한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많은 것을 증언하면서 비틀거리며 가고 있는 것이다. 요즘 그 '파묘(破墓)'라는 영화가 역설적이게도 보수들의 '이승만' 영화의 역공으로 작품의 완성도와는 다르게 뜨고 있다. 아마 1000만 관객은 금방 넘어설 것이다. 이 땅의 권문에 관한 문제도 한번은 자체적으로 '파묘(破墓)'에 버금가는 결단에 의해 이런 문제를 뒤집어야만 할 것이다. 마침 안산이 다문화로 점철된 이태(異胎)의 도시이고, 대학의 도시, 그리고 김연아라는 걸출한 인재가 나온 곳이기도 하여, 경성당 이야기에 앞서 언급해 보았다.

(다음호에 계속)

##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제안(2)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므로 "노후 준비는 돈만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돈 걱정 없는 노후생활은 누구나 꿈꾸는 은퇴 후의 모습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당장 정년퇴직을 코앞에 둔 50대는 물론이고, 막 가정을 이룬 30대 신혼부부도 돈에 대한 걱정에서는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나이 먹어가는 자기 자신 또는 부부를 위한 노후준비는 아이들에게 대한 교육비와 전세금 마련 등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돈 걱정 없는 노후 대책을 거의 마련치 못하고 퇴직을 맞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돈 걱정 없는 노후생활은 금융 상품 한두 개로 해결될 수 있으며, 삶의 자세를 바꾸는 것만이 "돈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은퇴 이후 돈 걱정 없는 노후는 아니더라도 "노인거지(늙어서 돈이 없게 된 사람)"가 되지 않으려면 지켜야 할 것이 몇 가지를 말하려고 한다.

첫째 가까운 사람에게 큰돈을 절대로 빌려주면 안 된다.

가까운 사람이라 형제자매, 자녀들, 4촌 이내의 친인척들을 말한다.

특히 어머니나 오빠·언니에게 빌려준 돈은 거의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부금으로 생각해야 할 것 같다.

우리 사회에서는 돈을 꾸어 가는 경우에 거의 차용증을 쓰지 않고 신용으로 돈거래가 이루어진다. 빌려주는 사람이 차용증을 요구하면, 나쁜 사람으로 취급되어 동료사회나 집안에서 왕따를 당하곤 한다.

그런데 신용으로 빌려 간 돈을 제대로 갚는 사람은 정말 드물며, 최근 치매증상이 많아 차용증이 없는 경우 빌려준 사람도, 빌려 간 사람도 잊어버리곤 한다. 그러므로 돈은 빌려주는 것이 아니다. 빌려 간 사람은 잠을 잘 자지만, 빌려준 사람은 잠을 못 자게 되어 있다.

안 빌려주든가, 그냥 주는 것이 좋다. 어떤 경우에도 돈을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 돈도 잃고, 친구도 잃는다. 먹고 살기 어려운 경우에만 조사한 후에 생활비를 일부 보조해주는 것은 좋다고 본다. 특히 노후에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경우에는 그 허유증이 심각하다.

따라서 1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면 친한 경우에는 그 돈에서 "0"을 하나 뺀 금액(10만원)을, 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을 둘 뺀 금액(만원)을 그냥 주는 것이 좋고, 그것을 거절하면 안 주면 되는 것이다.

돈을 빌려주지 않은 경우의 나쁜 감정은 1회



**권오령**  
경영학박사  
공인회계사·세무사

로 끝나지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서 질질 끌게 되는 경우에는 나쁜 감정이 끝없이 쌓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돈을 빌려주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배우자와 상의하여 합의한 후에 빌려주어야만 못 받게 되는 경우에도 가정불화가 최소화 된다.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 대한 명언이 있다.

"빌려준 돈은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노후의 자녀 문제가 어려운 큰 숙제이다.

60세 무렵에 자녀들의 취업, 결혼, 3세 출산 등이 모두 마무리 되었으면 최상의 마무리가 된것이지만, 실직, 미혼의 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면 대책이 없는 가장 큰 고민거리이다.

자녀에 대한 지원은 첫 월급 받은 시점에 종료해야 한다.

특히 자녀의 사업 부진 시 언제까지 지원해야 하는가?

본인의 의견으로는 일정 시점에 지원을 포기하고, 파산을 하도록 해야 한다.

파산의 방법에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가 있는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법률검토를 받은 후 실천도록 하면 된다.

사업이 부진한 자식의 사업을 계속 지원하면 모두 망할 수 있지만, 파산정리를 하면 다른 가족들(특히 손자, 손녀)에 대한 지원은 계속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다.

상속의 경우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돈은 피보다 더 진하다는 원리가 지배하고 있다. 재산은 물려줄 수 있지만 경영능력은 세금은 없는데도 물려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재산의 사전 증여 시에는 자녀들의 증여받은 이후의 부모에 대한 의무조항이 기재된 효도계약서의 사전작성이 필수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구체적인 은퇴계획서의 내용은 다를지라도, 은퇴 준비와 설계는 60대 이후 후반전의 중요한 과제이다. 은퇴 시점(55세~65세)에 남은 40여년 동안의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한 설계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위기대응계획도 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보유재산(본인의 재산, 배우자와의 공동재산)의 운용과 관리, 부부간의 화목과 건강문제에 대한 설계가 필요한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 회고(懷古) 회한(悔恨)의 서한

권혁원 대종회 부회장



천고마비 지절에 임하여 배필이 되어 희노애락을 같이한 세월이 어언 금년(계묘 2023년) 음력 9월 14일은 해로한 지 61년으로 백년가약을 맹서한 길일을 맞이하였다!

동반자와는 1942년 임오생 동갑으로 철 없는 21세에 반려로 인연이 되어 1남 6녀를 출산하였다. 자아는 (부친 권오봉, 모친 윤희용) 7남매 중 장남으로 부여군 외산면 지선리에서 출생하여 성장하였고, 묵령의 윤임순 규수는 (부친 윤주경, 모친 임평원) 4남매(2남 2녀) 중 둘째로 보령군 미산면 남심리에서 출생하고 성장하였다.

반려의 인연은 생의 외종조부(윤희수)이시고, 규수대과는 파평윤씨 족친으로 병년의 낭자를 중매하여 해로 61년, 금년 82세로 호호백발이 되도록 무탈하게 생활하고 있네. 본가, 외가, 처가 등 삼 씨족은 사대부 가문의 유학자 집안으로 학덕과 지식을 갖추었고, 여유있는 생활을 하였다. 낭자는 유년이었으나 성격이 호탕하고 낙천적이며 아량이 하해와 같이 넓고 기교와 재능도 우월하여 활약하였다. 이에 반하여 생은 응출한 성격에 불투명하고 자상하지 못한 언행 등 과오를 인정하고 자부하나, 이에 반하여 우자일득(愚者一得)의 장점도 있어 주위 대중으로부터 존경과 지도자로 인정받은 것

은 긍지로 생각하지. 자랑은 팔불출이나 하는 언행이지, 해로(偕老) 61년은 평생을 살아도 잘한 것이 근간이 되고 결과인 것이라 자부하네. 자녀들은 사회에 진출하여 동랑지재(棟梁之才)로 입신 양명(立身揚名)은 못했으나 탄이에 지탄받지 않고 각자 직무에 충실히 하고 있다. 각자 열거하면 국립 대학교수, 중국어 고전문학 한학자, 간호사, 간호사, 대기업경영교육컨설턴트, 학원 원장, 미국의 반도체 연구소 IBM사와 메모리 디바이스 마이트론사 연구원 부장 그 외의 개인사업자도 영업을 성대히 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배우자의 현명하고 명석한 정성과

현모양처로서 자질이 겸비되었음을 인정받기 때문

이라 자부하네. 상기에서 팔자가 불길하다 한탄함은 수신제가하고 경세제민해야 할 가돈(家豚)이자 친명에 근접하고 있으나, 성가(成家)하지 못하고 있으니 한탄스럽고 수치하기 한이 없다.

불효부제막심(不孝不悌莫甚)하여 사후에 황천에 가서 조상님 보을 면모이 없게 되었네. 불취무자(不聚無子) 절선조사자(絕先祖祀者) 불효유무후자(不孝有無后者) 위대죄자(爲大罪者)라 하였거늘 후사숙(後嗣續)을 하여 봉사순(奉祀孫)의 도리를 수행하는 것이 자손된 효행의 근간인데 불효를 자행하고 있으니 한탄스럽구나. 가문의 번창은 후사숙이 유품이고 영광이며 외출하였다. 귀가하면 예고의 정이 많은 며느리와 재룡동(才弄童)이 손주가 있어야 기운에 장래가 있고 박장희소(拍掌喜笑) 할 수 있는 것인데 어찌하여 팔자 불길함을 타령하는지.

거번(去番) 음 7월 25일(양 9월 9일) 조강지처(槽櫈之妻)의 82회 생일에 회한의 서한에서도 상기와 유사한 내용의 글을 전한 바 있지만, 해로(偕老) 61년 회훈을 맞이하면 팔자 좋은 자들은 평생 최선의 긍지로 친지들을 초청하여 연회를 성대히 하였다.

회훈례연은 가문의 경사이고 영광이지만 연회를 하는 기운은 희소하였다. 호 팔자에 자손이 번창하여 입신양명하고 가정에 화복이 우선이고 생활에도 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61년 해로하여도 연회를 하는 가정은 희소하였다. 이러한데 즐자(拙者) 같은 자가 감히 회훈이라 할지라도 수치하기 한이 없는 데 위인(偉人)들 앞에서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 80여 평생 무탈하게 살아온 것으로도

선조와 선현의 음덕이고, 주위에서 친지분들의 은

덕이 지대한 것으로 감자덕지하게 생각하는 것이 고 보답은 못하니 도리이겠지. 그리하기 때문에 평생 호불호 사주팔자에 대하여 한탄하고 타령을 하는 것이 아닌가! 본인은 항상 배우자에 대하여 전문(見聞) 각지하고 낙천적이며 호호야(好好爺)의 인물로 대하고, 동경(憧憬) 애련(哀憐)의 심정은 있지 않고 있네. 팔불출 소리들을 언행 두서없이 수치를 감수하고 쓰다 생각하니 허송세월로 살아온 것 이 한탄스럽군! 지금에 와서 말하는 것은 일모도원(日暮途遠)에 일락서산(日落西山) 격이지. 모든 것 이 본인의 자책이 지대하지만 가돈(家豚: 자식)들이 부모를 위하여 하는 것이 자식된 도리이고 효행의 근본이 되는 것이지. 재언하는 것은 자기의 모욕

에 해당되는 것 용렬 부터의 소치 악하고, 자식들에 게 할시 하는 부탁이지만 나의 사후에 장례는 간소하게 행하고 조문객 접대 후하게 하는 것이 상주의 예도이다.

사후에 가족 간에 유산이나 부의금으로 투쟁하는 것은 천벌을 받게 되니 명심하여라. 가족 간에는 우애와 화목이 우선이니 재물은 화산같이 버리고 원수같이 피하고 명예를 우선으로 하여라. 재화에 탐욕이 많으면 가정에 파탄과 면문지환을 당할 수 있다. 7남매 화합하면 만사형통할 것으로 기대한다.

2023년(癸卯계묘) 10월 28일(음력 9월 14일)

해로 61년(회훈일)

1962년(壬寅임인) 음 9월 14일 작수성례(酌水成禮)

## 안동권씨 파종회장협의회 및 전례위원회 간담회 개최

안동권씨 파종회장협의회 및 전례위원회 간담회가 3월 15일 11시 영주시 문정동에 위치한 영주축협 한우프라자 4층 소회의실에서 권기윤 파종회장협의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개최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영창 대종회 회장을 비롯하여 권중근 파종회장협의회 회장, 권기수 부회장(별장공파회장), 권순복 감사(정조공파회장), 권오돈 추밀공파회장, 권한종 부회장(공파회장), 권세복 복야공파회장, 권정호 동정공파회장, 권영호 검교공파회장 총무, 권중희 회장과 함께 4층 회장을 비롯하여 전례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참석하였다. 이외에 권중수 상임위원장이자 영주종친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본 회의에 앞서 권태형